



KIA 마운드 날개 달다

신에 투수들, KIA 마운드에 날개를 달다.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윤석민을 필두로 화려한 선발진을 구축하면서 투수 왕국 재건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양현종(21)과 광정철(23)은 눈부신 성장세로 선발자리를 꿰차며 마운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좌완 양현종과 우완 광정철은 150km가 넘는 직구를 보유한 'KIA 강속구 군단'의 일원이다.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타구단에서 눈독을 들이던 '월성부른 떡잎'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현종과 광정철은 재능에 비해 경험 미숙과 가다듬어 지지 않은 제구 때문에 불펜을 오가며 각각 통산 1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양현종은 2007년 입단 이후 79경기에서 12승 3분의 1이닝을 던져 5.1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2005년 입단한 광정철은 18경기에 나서 37과 3분의 1이닝 동안 4.1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이들의 조련에 공을 들이던 조범현 감독은 전지훈련 때부터 양현종과 광정철을 선발로 점찍어두었다.

양현종은 미야자키 전지훈련 연습경기에서 1.50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을 챙기며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시범경기에서도

변화구 위주의 투구로 컨트롤을 점검하면서도 12와 3분의 2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2.1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겨우내 무서운 기세로 시즌을 준비했던 양현종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두산 베어스의 개막전 2선발로 등장, 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 하기는 했지만 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선발신 고식을 무사히 끝냈다. 그리고 두 번째 등판인 12일 삼성전에서는 8이닝 무실점 투구로 18개월만에 승리투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

광정철은 전지훈련 막바지 영령이 통증으로 고전하며 3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시범경기에서 9와 3분의 2이닝동안 1실점 하며 선발 경쟁에 속도를 냈다. 선발로 낙점받은 광정철은 9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5와 3분의 1이닝동안 1실점 하며 2009시즌의 활약을 예고했다.

달라진 두 선수의 원동력은 '컨트롤'과 '자신감'이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제구가 잡히면서 특유의 강속구 위력이 배가 됐다. 무엇보다 자신감은 두 선수의 큰 재산이 됐다.

전매특허인 매서운 강속구와 달리 예고 만점인 마운드 막내 양현종과 과묵한 광정철은 덕아웃에서 '순둥이'로 통한다. '마운드 울렁증'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두 선수는 치열한 마운드 싸움을 통해 한층 강해졌다. 부쩍 성장한 양현종과 광정철의 행보에 KIA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 '순둥이' 광정철

돌직구 무장 선발 낙점

올시즌 승수쌓기 선언

■ '막둥이' 양현종

'자신감' 앞세운 배짱투

마운드 '좌완 가뭄' 해결

거침없는 추신수 불박이 주전



4경기 연속안타... 팀내 타율 2위

삼진도 두번 밖에 당하지 않아 5경기 이상 풀 선수 중엔 가장 적다. 지난 10일 텍사스와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우려를 자아내던 때에 비하면 나흘만에 입지가 편안하게 달라졌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느라 스프링캠프 훈련량이 부족한 추신수에 대해 '매일 외야수로 출전시키진 않겠다'고 했던 에릭 웨지 클리블랜드 감독의 신뢰도 역시 확 바뀌었다.

추신수가 13일 토론토전에서 햇빛 때문에 타구를 놓쳐 3실점의 발미를 제공하자 웨지 감독은 오히려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어떤 식이든 우리 투수를 도우면 된다'며 타석에서 3타수2안타로 활약한 추신수를 감쌌다.

원손 투수가 나오면 좌타자 추신수 대신 오른손 타자를 내세우는 플레툼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즌 첫 홈런을 좌완 투수 브라이언 탈레트(토론토)에게 뽑아냈다. 올해 처음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잠재적 경쟁자 트레버 크로는 0.167(12타수2안타)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배트 스피드가 완전히 되살아난 사실이 반갑다.

추신수는 부상 후유증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WBC 본선 라운드까지 11타수1안타의 빈타에 허덕였다.

14일 경기에서 절정의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1회초 20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 중인 캔자스시티 선발투수 잭 그라인키의 153km 강속구를 거침없이 잡아당겨 2루타를 때렸고 9회엔 지난 시즌 42세이브를 올린 마무리 투수 조아킵 소리아의 초구 직구를 가볍게 끌어쳐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지난 시즌 9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9(98안타), 14홈런, 66타점, 장타율 0.549로 홈런을 빼곤 최희섭(KIA)의 시즌 기록을 모두 넘어선 추신수가 2009 시즌엔 진정한 풀타임 메이저리거 강타자로 우뚝 설 기세를 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의 방망이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 추신수는 14일(한국시간)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와 원정경기에서 5타수2안타를 치고 1타점을 올렸다. 지난 12일 토론토와 경기부터 사흘 연속 하루 2개씩 안타를 생산하고 있다. 11일 마수걸이 홈런포부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걸었다.

계막 시리즈에서 부진해 0.167로 출발했던 타율은 어느새 0.364(22타수8안타)로 치솟았다. 14일 현재 아메리칸리그 타격 순위에서 유니스키 베탄코트(시애틀)와 함께 공동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팀내 타율은 포수 빅터 마르티네스(0.367)에 불과 3리 뒤진 2위.

팀 타율 0.241로 아메리칸리그 14개팀 중 13위인 클리블랜드에서 3할 타자는 추신수와 마르티네스 둘 뿐이다.



위성미 호쾌한 드라이버 샷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위성미(나이키골프)가 14일 스카이힐 제주골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위성미는 15일부터 3일간 열리는 MBC투어 롯데미트 여자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지만 이날 프로 입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위성미(나이키골프)가 14일 스카이힐 제주골프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위성미는 15일부터 3일간 열리는 MBC투어 롯데미트 여자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지만 이날 프로 입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라도의 딸' 김연경 MVP 유력

정규시즌 4연패 달성 관심

전남 구례가 고향인 여자프로배구 최고의 스타 김연경(흥국생명·사진)이 정규시즌 MVP 4연패 위업을 달성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속팀 흥국생명을 정규리그 3위에서 챔피언으로 등극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던 김연경, 그녀의 대기록 달성 여부가 1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NH 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시상식에서 결정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이날 득점상·공격상 등 남녀 6개 부문 개인상 수상자를 시상하고 정규리그 남녀 최우수선수(MVP)와 신인상을 현장에서 발표한다.

정규리그 개인타이틀 서브상(성공률 0.367)을 확정지은 김연경은 공격종합(성공률 47.09)·시간차공격(성공률 53.84) 2위, 킥오픈(성공률 54.36) 3위, 득점(670점)·오른공격(성공률 39.26) 4위 등 공격 전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KT&G를, 챔피언결정전에서 GS칼텍스를 제압하는데 수훈감이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자부 MVP 후보에는 안철코(삼성화재)와 박철우(현대캐피탈)가 꼽힌다.

팀을 2년 연속 정상으로 이끈 안철코는 885득점(34경기)으로 2위 칼라(대한항공·575점)를 제치고 득점상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또 43개의 서브에이프로 세트당 0.367개를 성공해 서브왕도 차지했다.

현대캐피탈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끈 박철우는 공격성공률 55.32%로 공격종합 1위에 올라 공격상을 받는다. 또 그는 오픈공격에서도 45.74%의 성공률로 역시 1위에 올랐다.

삼성화재 노장 세트 최태웅도 챔피언결정전에서 뛰어난 투스로 팀 우승을 이끈 공로를 감안하면 MVP 후보군에 합류하는데 중



분한 자격을 지녔다.

MVP와 신인상은 기자단(23표), 주관방송사(2표), KOVO 전론위원회(14표) 등 총 39표로 결정된다.

◇KOVO 개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남녀 득점상 = 안철코(삼성화재) 밀라(도로공사) ▲남녀 공격상 = 박철우(현대캐피탈) 데라쿠루즈(GS칼텍스) ▲남녀 세트상 = 최태웅(삼성화재) 이효희(흥국생명) ▲남녀 수비상 = 이강주(신협상무) 김해란(도로공사) ▲남녀 블로킹상 = 이선규(현대캐피탈) 김세영(KT&G) ▲남녀 서브상 = 안철코(삼성화재) 김연경(흥국생명) ▲우승감독상 = 신치용(삼성화재) 여창선(흥국생명 감독대행) ▲KOVOPM나무상 = 정태현(유성초) 김윤호(남성중)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연합뉴스